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수출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리왔던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들이 줄줄이 적자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다.

KBS가 3일에 걸쳐 특집을 방송하면서까지 불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수출은 일본의 엔저현상까지 겹쳐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화환율이 달러당 1030원 수준에서 1100원 가까이로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살아나는 커녕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엔저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일본기업들은 전자, 자동차를 중심으로 엔저현상이 강화되면서 수익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호황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엔저현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엔저에 앞서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무라증권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8개 일본 전자기업들은 2014년 3/4분기 영업이익이 34억달러로 삼성전자의 39억달러를 바짝 추격했다. 2011년 삼성전자에 뒤처지면서 일본시장 몰락의 상징으로 작용했지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엔저가 겹치면서 국내기업에게 빼앗긴 세계시장을 모두 되찾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동차는 더 큰 문제로, Toyota는 2011년 영업이익이 현대·기아자동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14년 3/4분기에는 63억달러로 3배에 달했다. 특히,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엔저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가격을 추가 인하할 기세여서 국내 자동차기업들이 극심한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원저에도 불구하고 영업부진이 심화되는 반면 일본기업들은 엔저를 바탕으로 날개를 단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기업들은 달러당 70엔 수준으로 도를 넘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엔고현상이 심화될 때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으니 엔저로 통화정책을 전환해달라고 억지를 무리는 대신 엔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해외생산으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강화해 범용제품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확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및 원료 사용량을 대폭 절감했고 자동차, 전자, 2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선두자리를 굳혔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원고현상이 나타날 때면 어김없이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를 앞세워 원고 때문에 수출이 안되고 고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엄살을 떨면서 재정 및 통화당국을 압박했고, 한국은행은 수조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달러화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달콤한 홍시를 먹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 것이 아니라 원저라는 황토바닥에 누워 떨어지는 홍시를 받아먹기에 급급했고, 결국 원저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엔저의 역습은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저의 저주가 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답이 나올 것이다.

엔저의 역습 원저의 저주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